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전환 착착

전주시, 올해 후백제 역사~올림픽 준비까지 문화·관광·체육 전 분야 성과

전주시가 올해 후백제 역사부터 올림픽 준비까지 문화·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창출하며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착실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1월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전주시 발전을 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장 시는 올해 2월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올림픽’ 구상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올림픽 국제 후보 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연장선에서 전주육상경기장은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실내체육관 역시 지상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며 2027년 6월 준공을 향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권 스포츠기차센터(2억 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5억 원) 등 주요 사업의 내년 국비를 확보하며 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로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

전통과 미래기술을 융합하는 미래문화도시 기반 조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1월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전주시 발전을 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큐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 출범식.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개최된 미래문화축제 ‘팔복’은 시민과 방문객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옛 휴비스 여성기숙사 부지에 조성되는 미래문화 생산기지는 설계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기술 기반의 콘텐츠가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될 이 공간은 전주의 미래문화 생태계를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영상산업 기반도 한층 강화한 가운데 고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상림동의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조성사업이

착공 단계에 들어섰고, 두 시설 모두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큐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 제2스튜디오 건립을 확정하며 민간투자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관련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

AI 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사업에 포함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전주의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의 확장도 꾸준한 가운데 고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올해 6월, 서학동 무형유산 복합문화

시설은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개관한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는 누적 방문객 11만 명을 기록하며 새로운 관광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주관광재단이 올해 3월 출범하며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도 한층 강화했다.

전주관광재단은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 마케팅, 관광자원 연계 등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도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7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국기유산야행, 전주단오, 조선팔페스티벌, 전주얼티미뮤직페스티벌, 가뭄축제, 비빔밥축제 등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전주페스타 2025는 ‘함께-가을’을 주제로 25만 명이 참여하며 전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원도심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은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바뀌어가는 분기점이었다”며 “전주는 더 이상 전통의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에 현대를 더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도시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보건의료서비스강화로 시민 건강 챙겼다

전주시보건소, 올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건강 증진 가시적 성과

전주시보건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강령별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확대한 결과, 대상포진은 총 9500건과 백일해는 4300건의 접종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건강증진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2023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2024년 차상위계층, 2025년 80세 이상 일반시민까지 단계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지원이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되며 예방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접종대상자는 기존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 시 1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80세 이상 어르신은 자부담 1만 9,610원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출산 건강보호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 임신부대상에서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포함해 가정내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보완했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권장) 및 그 배우자가 보건소 무료 접종 대상자이며, 임신부의 경우 임신 때마다 1회, 배우자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접종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해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교통·관광 새로운 거점 전망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전주지역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이자 동부권 관광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시는 내년 2월 초 공사 준공이 목표인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90%를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신축사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설은 연면적 5,472㎡,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복합환승장과 통합관광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시는 시설이 완공되면 전주역과 함께 인근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통·관광 거점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건물 지하 1층에는 공영주차장(주차대수 97면)이 조성돼 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 및 주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상 1층에는 복합환승장이 위치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정류장에도 사용돼 전주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부권 교통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다. 여기에 건물 지상 2층~6층까지는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굿즈홍보관, 관광유관기관 사무실 등 통합관광센터가 조성돼 전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전주역과의 연계,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교통 및 관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권의 교통과 관광에 대한 새로운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관광도시 전주의 새로운 관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활용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김학송·이성국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전주시 문화지구 관리·육성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지원단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성국 의원(효자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지원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지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김학송 의원 이성국 의원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지구관리계획 △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문화지구의 지원 및 행위 제한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주민협의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선·통신선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는 올해 전주제일고 일원 등 7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원 44억 원을 투입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선정돼 전주제일고 일원 △서부시장 일원 △평화중 일원 △안산동 주민센터 일원 △우석고 일원 △용소초 일원 △중양여고 일원 7곳을 정비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전파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합동점검 및 정비방안,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협업했다. 그 결과 △폐선·사선 철거 △노후 지주 교체 △처진 공중케이블 정비 △인입선 통합



등 지주 3160본과 케이블 148km 규모의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했다.

시는 지속적인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정비 기간 중 정비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유예 등 정비사업자의 고통 해소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제12회 무주 반디볼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6년 1월 8일(목)~1월 9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